

## \*\*유럽의 주택전시회를 통해 본 주거건축 계획의 시대적 쟁점

- 1920-30년대 공작연맹주최 주택전시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평면개념을 중심으로 -

A View of Contemporary Issues of Housing Architecture in the European Housing Exhibition

- Focused on the Floorplan Concepts of Werkbund Housing in the 20's-30's -

전남일\* / Jung, Nam-Il

### Abstract

The Werkbund housing exhibitions in Europe in the 20's and 30's presented various planning concepts and played a important roll for modernization of housing Architecture.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understand the contemporary issues of housing in this period, which showed the meaningful momentum for housing plans today. In order to grasp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xhibition housing the representative cases -Weissenhofsiedlung, Dammerstock, Breslausiedlung, Werkbund Siedlung in Zürich-Neubühl, Werkbundsiedlung Wien und BaBa- were thought documents analyzed, The architects offered an innovative building typology such as row housing and new prototype of housing units accordingly social needs. Especially, in this study housing unitplans were in 6 groups such as flexible type, cabin type, free open plan, Raumplan, functional 2-story type and corridor type categorized. And they were analyzed how deeply technological development, architectural design perceptions as well as functional aspects had on the planning of floorplans reflected. As a result, in the housing exhibitions various architectural ideas presented the "Zeitgeist" not only such as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 of housing, but also such as rationalization, standardization, functionalization, normalization of housing architecture. Also their unitplans corresponded to newly developed building typology and modern household type. As well as they represented notable spatial concepts. Moreover it contributed to create a new paradigm of housing for the new epoch.

키워드 : 공작연맹, 주택전시회, 평면유형, 시대적 요구

Keywords : Werkbund, Housing exhibition, Typology of floorplan, Zeitgeist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공동주택은 각 나라마다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뿌리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적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로 인해 다양하게 발전되어 온 유럽의 공동주택 계획들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에서의 공동주택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지금까지도 항상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축의 한 분야로 여겨왔다. 주거건축은 기능주의의 시대, 대량생산의 시대, 포스트모던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를 거

쳐 오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대상황에 맞추어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계획의 쟁점들,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해법들을 정착시켜 온 것이다.

이렇게 유럽 공동주택이 건축계획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사회의 중요한 시대마다 등장했던 '주택전시회'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20 - 1930년대의 주택전시회에서는 최초로 근대적 의미의 공동주택들이 선보였고, 같은 맥락의 개념들이 적용된 단독주택들도 상당히 많이 선보였다. 주택전시회는 주거가 담당하고 선도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한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첨병이었다. 또한 여기에는 주거건축이 시대정신을 반영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한 공공정책과 그에 부응한 건축가의 작가정신 또한 큰 역할을 했다. 즉, 건축가들은 주택전시회를 통해 주거건축을 자신들의 시대정신(Zeitgeist)에 대한 소신과 신념을

\*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부교수

\*\* 본 연구는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표현하는 중요한 창구로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전시회를 통해 각 전시회에서 뚜렷이 부각되었던 계획의 쟁점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주거건축이 발달해 온 과정, 특히 근대 공동주택의 뿌리가 되는 시점의 계획개념들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시대의 조류를 읽는 것은 현재의 주거건축이 발달되어 온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후일의 계획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거건축이 갖는 특이성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 근대 주거공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주거건축의 역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와 문화의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했던 전시회 주택의 사례를 통해 나날이 획일화되어가는 우리나라 주거 계획의 경향을 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첫째, 유럽 각지에서 산업혁명 이후 개척되어 온 '주택전시회'의 취지와 역사적 의의를 정리함으로써 주거건축 계획의 시대적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각 주택전시회에서 나타나는 그 시대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들을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주거가 요구될 때 주거건축이 대응해 온 여러 계획적 대안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주택전시회에 나타난 단위주호의 평면을 고찰함으로써 산업혁명 직후 사회가 요구하는 이슈가 주택의 평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이 시대의 주거건축이 후일의 주거 계획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보고, 이때 주거건축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산업혁명 직후부터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개최되어 온 주택전시회들이다. 이 시기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주거건축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는 시기였다.<sup>1)</sup> 이때 집합주택<sup>2)</sup>의 등장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집합주택이 등장한 시기로 큰 의의를 갖는 시기이다. 즉, 이전까지 건축가들

1)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달과 공장생산 체계의 활성화로 도시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맞게 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 더욱이 1차 세계대전은 이를 더욱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주택난을 해결하고 절대다수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공업에 의존하던 기존의 건축방식과 전통적 주거형태를 포기해야 했고, 새로운 주거형태와 기술개발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정성훈, 건축박람회를 통한 주거건축 유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10호)

2) 여기서 공동주택과 구별해서 집합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시기에 주거단지를 집합적으로 개발, 계획하여 공급했다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주택전시회와 같이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단독주택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모두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을 연구의 내용에 포함한다.

이 주거를 계획하는 경우는 개별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이 시기는 건축가들로 하여금 주거를 계획함에 있어서 거주자를 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계획하도록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주거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기였으며, 주택전시회는 다양한 새로운 주거에 대한 이상을 제시하는 창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다.

이 시기 등장한 주거건축의 새로운 개념과 모델들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현대 주거의 원형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축가들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당시로서는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계획안들을 선보였으며, 전시회주택은 후일 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모범사례가 된 것이다.

특히 공작연맹(Werkbund)은 1907년 예술, 공예, 산업의 합일을 제안한 윌리엄 모리스의 이상을 모델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건축을 포함하여- 대상들의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독일에서 최초로 결성되었다.<sup>3)</sup> 이를 시작으로 1912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1913년에는 스위스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공작연맹이 결성되었으며 공작연맹은 20-20년대에 유럽 각지에서 크고 작은 주택전시회를 개최하였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전시회주택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그 중 대표적인 독일의 바이센호프 주거단지 및 브레슬라우 주거단지와 스위스의 노이빌 공작연맹단지, 오스트리아의 비인 공작연맹단지, 체코슬로바키아의 바바 공작연맹단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주택전시회의 사회적 배경과 그 주역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주거단지의 계획개념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주거단지의 건물의 유형, 단위주호계획, 외관계획에서 나타나는 건축가의 의도와 그 시대 거주자들의 요구,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사회적 요구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동안 주택전시회에 대해서는 몇몇 연구들이 있었는데, 주로 단지차원의 접근이 많이 이루어졌고, 단위주호에 대한 연구는 전무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택전시회 단지의 특성과 함께 전시회주택의 평면들이 20-30년대의 주택에 대한 아이디어 -한편으로는 오늘날 주택평면의 모델이 되는-가 집결된 대표적인 사례라는 데 주목하여 단위주호에 대한 고찰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사례로 채택한 주택의 평면은 총 26종류였으며, 각 단지별로 비교적 비슷한 수로 선정하였다.

평면은 공간구성에 따라 유통형, 캐빈형, 개방·자유형, 라운플랜형, 기능적 복층형, 복도중심의 영역분리형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3) Helmut Schramm, Helmut Schramm, Low Rise-High-Density, Wien, 2005, p.23.

4) 공작연맹은 1933년 나치의 등장과 함께 해체되었으며, 1947년 독일건축가 한스 샤로운에 의해 재결성되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공작연맹단지를 찾아내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는 데서도 본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 2. 1920-30년대 유럽의 주요 주택전시회와 계획개념

### 2.1. 조사대상 주거단지의 일반적 특성

이들 주택전시회들은 전시장 자체를 실존하는 부지로 선정하여, 여기에 다양한 주택들을 건설함으로써 전시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당 시대에 명망있는 건축가들이 초빙되어 주택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제시하도록 요구되었다. “모던”에 대한 의식이 사회를 휩쓰는 가운데, 전시회에서는 실험정신이 깃든 다양한 시범주택들이 지어졌다.

한편 산업의 발달로 대량생산되기 시작한 새로운 재료들은 그에 부응하는 건물의 형태를 창출하도록 하는 하나의 압력이 되었으며, 혁신적인 건물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합당한 평면을 요구하였다.

#### (1) 바이센호프 주거단지(Weissenhofsiedlung), 1927

1차 세계대전 이후 개최된 최초의 주택전시회로서, “주거(Die Wohnung)”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단지는 공작연맹의 이상을 실현하는 주거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유럽 각국의 건축가들이 초빙되어 스투트가르트 근교 바이센호프 부지 언덕에 건설되었다. 주로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 주택 위주로 계획되었으며, 이때 단지는 하나의 개념으로 총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각 건축가들이 설계한 다양한 유형의 개별건축물들이 개방된 대지위에 단순히 집합된 것이었다. 주거의 유형으로는 단독주택, 층층아파트, 연립주택, 2호 연립주택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주거의 형태와는 상이한 건물들이었으며 배치방식 역시 혁신적이었다. 이는 새로운 재료와 구조, 그리고 생산방식에 적합한 주거건축의 모델로 요구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계획개념은 “합리화와 유형화(Rationalisierung & Typisierung)”였는데, 총괄 건축가였던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이것은 이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물의 형태와 사회적 요구가 합치될 것과 동시에 기술적 요구 또한 충족시키며, 주거생활의 개선을 추구하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다.<sup>5)</sup>

주거단지에서 제시된 유형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미래 지향적이어야 했으며,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응해야 했다. 그러나 이때의 계획은 이전 시기까지 거주자를 정한 상태에서 계획되어왔던 주거건축의 관행과는 완전히 달랐다. 따라서 건축가들은 “익명의 거주자”를 위한 이상적인 주거를 제시해야 했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의 프로그램을 실현

해야 했다.

#### (2) 담머스톡(Dammerstock), 1929

이 단지는 “실용 주거(Gebrasuchswohnung)”라는 주제로 칼스루에 시 당국에 의해 진행된 현상설계의 결과로, 그로피우스의 안이 채택되어 실현된 단지이다. 예술감독인 그로피우스는 중산층을 위한 건강하고 실용적인 주거를 실현할 목적으로 가장 단순하고 합리적인 형태인 일자형 연립주택 단지를 계획하였고, 이는 후에까지 일자형 단지의 완결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목적은 공사비 절감과 소규모 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함과 더불어 새로운 주거형태를 개발하고자 함이었다.<sup>6)</sup>

아울러 그 시대 필요한 주거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고자 같은 평면형을 단순히 반복, 배치했으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거주자는 건축가가 의도한 규범에 따라 맞추어 거주하게 되도록 계획되는 방식, 즉 추상적 주거방식이 통용되었다. 또한 주거는 가장 기능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으므로 통풍, 위생, 채광 등의 물리적 조건을 모든 세대에 균일하게 제공하고자 했고, 그로피우스는 “햇빛 없이는 공간도 없다.”<sup>7)</sup>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 (3) 브레슬라우 주거단지(Breslausiedlung), 1929

이 시기 주택전시회 중 독일 건축가만이 참가한 유일한 전시회였으며, 예술감독은 아돌프 라딩과 하인리히 라우터바흐였다. 슈투트가르트의 주택전시회를 모델로 하였으며 주제는 “주거와 작업공간(WuWa: Wohnung und Werkraum)”으로, 거주공간 외에 작업공간이 주거공간 내에 함께 계획되었다. 이때 작업공간은 주거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공동의 생활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주거와 사회의 상호관계와 역할에 대한 개념이 표출된 것이었다. 이때 작업공간인 사무실, 농장 등과 함께 개인병원, 유치원 등도 함께 계획되었다. 또한 단독주택으로는 당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연립주택과 아파트 위주로 계획되었으며, 경제성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의 저렴한 건설에 비중을 두었다.<sup>8)</sup> 또한 주거는 안락하고, 넓고, 편안해야 한다는 기능주의적 시각을 갖고 계획되어 미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나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전시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주택의 대량생산과 공급의 수단을 기능적, 경제적 측면에서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sup>9)</sup>

#### (4) 노이빌 공작연맹단지(Werkbundsiedlung Zuerich-Neubuehl), 1931

단순한 일자형 배치를 위주로 계획된 단지이지만 경사지형

6)정성훈, 건축박람회를 통한 주거건축 유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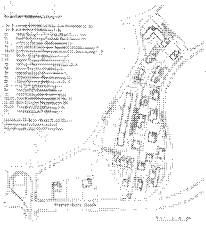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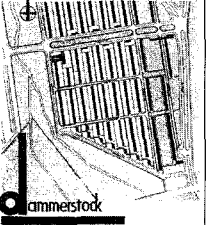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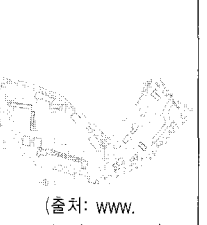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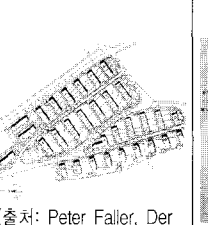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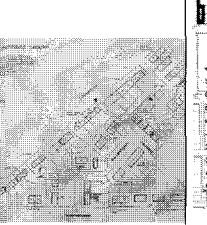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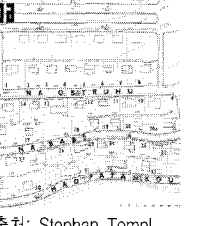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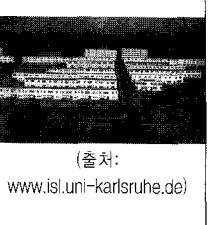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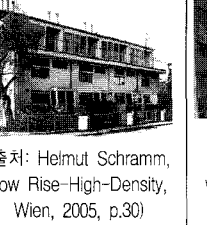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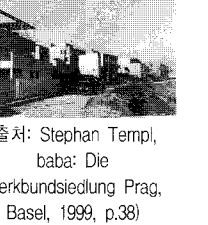
7)Gert Kähler, Geschichte des Wohnens, Stuttgart, 1996, p.265

8)정성훈, 건축박람회를 통한 주거건축 유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10호, p.7

9)박상현 외, 근대 시범주거의 시대적 대응성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4호, 1998, p.59

5)Helmut Schramm, Helmut Schramm, Low Rise-High-Density, Wien, 2005, p.23

<표 1> 1920-30년대의 공작연맹 전시회 개요

| 단지명                  | 사례1)<br>바이센호프 주거단지<br>(Weissenhofsiedlung)  | 사례2)<br>담머스톡<br>(Dammerstock)  | 사례3)<br>브레슬라우 주거단지<br>(Breslausiedlung)  | 사례4)<br>노이빌 공작연맹 단지<br>(Werkbundsiedlung<br>Zuerich-Neubuehl)   | 사례5)<br>비인 공작연맹 단지<br>(Werkbundsiedlung Wien)  | 사례6)<br>바바 공작연맹 단지<br>(Werkbundsiedlung Baba)   |
|----------------------|---|--|--|---|--|---|
| 건축년도                 | 1927  | 1929   | 1929   | 1931  | 1932   | 1932  |
| 건축장소                 | 스투트가르트, 독일  | 칼스루헤, 독일   | 브레슬라우, 독일  | 취리히, 스위스  | 비인, 오스트리아  | 프라하, 체코슬로바키아  |
| 참여<br>건축가            | W. Gropius, M. Stam,<br>Le Corbusier,<br>M. v. d. Rohe, J. Fink,<br>R. Döcker, H. Poelzig,<br>P. Behrens, B. Taut,<br>J. J. Oud, H. Scharoun<br>등 17인 | W. Gropius,<br>M. v. d. Rohe,<br>O. Häslser, Riphan+Grod<br>등  | L. Moshamer,<br>H. Lauterbach, M. Hadda,<br>P. Häusler, T. Effenberger,<br>E. Lange, G. Wolf,<br>A. Rading, P. Heim,<br>A. Kempfer, H. Scharoun<br>등 11인 | P. Artaria, M. Haefeli,<br>C. T. Hubacher, K. Moser,<br>A. Roth, H. Schmidt,<br>R. Steiger  | J. Funk, H. Häring,<br>A. Lurcat, G. T. Rietfeld,<br>R. Neutra, A. Grünberger<br>등 31인   | Z. Blažek, O. Fischel,<br>J. Fišer, J. Fuchs,<br>A. Heythum, F. Kaváir,<br>M. Stam 등 16인  |
| 규모                   | 60호   | 671호   | 132호   | 195호  | 70호  | 33호   |
| 배치도                  | <br>(출처: Alfred Roth, Zwei<br>Wohnhäuser, Stuttgart,<br>1991)        | <br>(출처: Helmut Schramm,<br>Low Rise-High-Density,<br>Wien; 2005, p.22) | <br>(출처: www.<br>wroclaw.hydral.com)                                    | <br>(출처: Peter Faller, Der<br>Wohngrundriss, Stuttgart,<br>2002, p.267)   | <br>(출처: www.common.<br>wikimedia.org)                                    | <br>(출처: Stephan Templ,<br>baba: Die<br>Werkbundsiedlung Prag,<br>Basel, 1999, 속표지)    |
| 건물형태<br>및 외관<br>(발체) | <br>(출처: Alfred Roth, Zwei<br>Wohnhäuser, Stuttgart,<br>1991)      | <br>(출처:<br>www.isl.uni-karlsruhe.de)                                 | <br>(출처: www.<br>wroclaw.hydral.com)                                  | <br>(출처: Peter Faller, Der<br>Wohngrundriss, Stuttgart,<br>2002, p.156) | <br>(출처: Helmut Schramm,<br>Low Rise-High-Density,<br>Wien, 2005, p.30) | <br>(출처: Stephan Templ,<br>baba: Die<br>Werkbundsiedlung Prag,<br>Basel, 1999, p.38) |

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마이크로한 공간적 다양성<sup>10)</sup>을 확보했다. 이 단지는 전후 계획된 주거단지 중 최초로 자동차의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된 단지로서 의미가 있다. 105호의 단독주택과 90호의 아파트로 이루어졌다.

#### (5) 비인 공작연맹 단지(Werkbundsiedlung Wien), 1932

소형의 단위주호로 구성된 단지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 단지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도 질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주거단지에서는 다른 주거단지와 달리 비교적 전통적인 형태로 70종류의 주거모델이 제시되었다.

#### (6) 바바(Baba) 공작연맹 단지(Werkbundsiedlung Praha), 1932

바바 주거단지는 공작연맹 단지 중 건축주의 사적인 자금으로 지어진 유일한 단지였다. 따라서 건축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주관적 실험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당시의 보편적 주거형태인 단독주택만으로 지어졌고, 이들은 경사가 있는 대지 위에 여유롭게 배치되었다. 공간적 프로그램 역시 개별 건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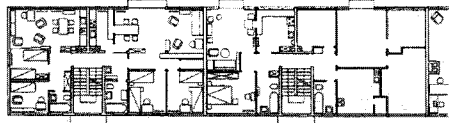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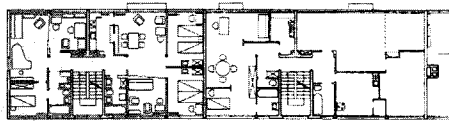
의 요구에 따라 부부를 위한 소형주택, 대가족형 빌라, 공동주거 개념이 접목된 다가구주택, 아틀리에 주택 등이 다양한 평면으로 제공되었다. 보편적 건물 유형을 채택했지만 이 단지 역시 다른 공작연맹 단지들과 같이 아방가르드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그동안의 전형적 시민주택과는 내용적, 외형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별성을 보였다. 평면은 경제적으로 구성되도록 요구되었다.

### 3. 주택전시회의 단위주호 평면의 유형

#### 3.1. 융통형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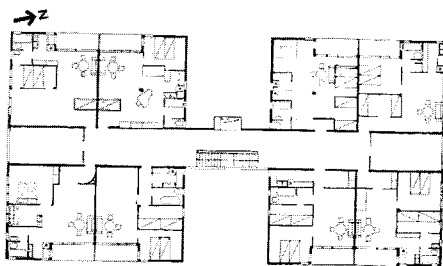
융통형 평면은 새로운 재료와 건설방식으로 가능했다. 즉 철근콘크리트 라멘, 또는 철골구조는 세대간 벽체뿐만 아니라 주거공간 내부에서도 벽체 없이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사례1)의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아파트 평면은 철골기둥식의 개방된 평면으로, 욕실, 부엌 등 설비가 필요한 공간을

10)Helmut Schramm, Helmut Schramm, Low Rise-High-Density, Wien, 2005,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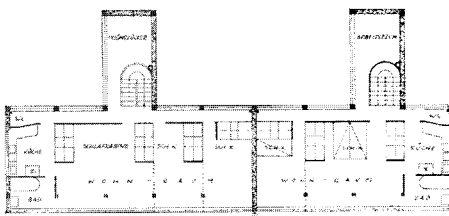
a) 미스 반 데어 로에

(출처: Peter Faller, Der Wohngrundriss, Stuttgart, 2002, p.63)



b) 아돌프 라딩

(출처: Peter Faller, Der Wohngrundriss, Stuttgart, 2002, p.178)



c) 르 코르뷔지에

(출처: Alfred Roth, Zwei Wohnhäuser, Stuttgart, 1991, 부록)

<그림 1> 융통형 평면

계단실 주변에 배치해 코어를 형성하고, 다른 부분은 벽체 없이 개방적으로 제공하여 평면의 융통성을 확보한 것이었다. 이는 익명의 거주자라는 전제 하에 4인 - 6인의 가족일 경우 어떠한 거주자가 살게 되더라도 거주자의 유형과 사용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대적인, 또는 전통적 관념의 평면에 모두 대응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이를 통해 노동자, 시민, 부유계층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평면형의 이상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때 철골 기둥식 구조는 규칙적인 베이를 형성하는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부공간의 내용은 일정한 베이로 인하여 인식될 수 없다. 결국 이것은 외관에서 모듈이 적용된 '가로로 긴 창'으로 나타나고 공업화시대의 즉물적이고 간결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사례3)에서 아돌프 라딩이 제안한 주거는 한 층에 8세대의 단위주호가 배치되고, 1층과 최상층에 공동생활공간을 둔 소위 공유주택(collective housing)의 개념이다. 이때 라멘구조 내의 단위주호는 다양한 방식으로 칸막이벽을 활용하도록 계획된 융

통형 평면으로 되어 있다. 이 주택은 일정한 모듈이 적용된 규칙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호 전면의 반은 발코니로 계획되어 입면상의 입체감을 피하였다. 미스나 라딩의 사례 모두 융통성을 예상할 때 완벽한 가구배치를 예상하였고, 특히 침대의 배치로 적절한 실의 크기와 거주자 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평면이 계획되었다.

사례1)의 르 코르뷔지에의 주거는 기둥식 구조의 하부를 필로티로 개방시키고 상부의 거주층은 개방형으로 계획한 것으로서, 그의 주택 계획의 원칙이 잘 드러나는 평면임을 알 수 있다. 상부층의 한 측면에는 부엌과 화장실 등 설비가 필요한 부분을 집중시키고, 전면 전체에는 거실을, 후면에는 침실을 배치하였다. 전면과 수직인 가변형 벽체를 배치하여 침실, 거실 부분 모두 필요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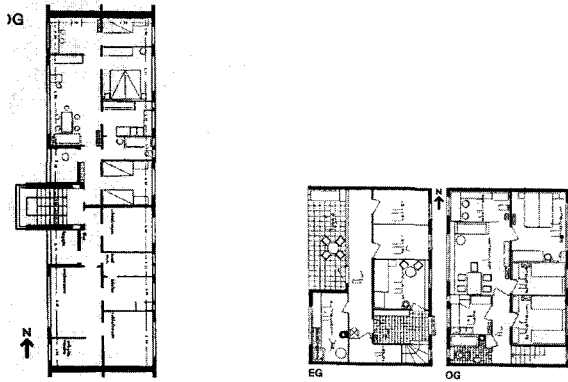
### 3.2. 캐빈형 평면<sup>11)</sup>

캐빈형 평면은 산업혁명 이전 시대 일반적이었던 평면형, 즉 복도가 배치되고 각 실이 그 주변으로 분화된 평면형과 반대되는 개념의 평면형으로서 복도를 최소화 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로써 어둡고 좁은 복도가 사라지게 되었고 거실은 복도가 담당했던 동선을 흡수함과 동시에 식당, 부엌과 함께 가족의 공동생활공간 영역을 구성한다. 이때 각 침실에는 대부분 최소한만의 면적이 할당된다. 또한 침실들은 일렬로 연속배치되어 마치 캐빈(cabin)과 같은 공간을 구성한다. 나아가 르 코르뷔지에에는 캐빈보다 더욱 축소된 취침영역, 즉 침대면적과 여윌 공간으로만 구성된 최소한의 취침캐비닛(cabinet)형 평면을 제시하였다. 공동주택의 평면 중에서는 사례2)의 오토 헤슬러의 평면이 대표적이다. 특히 주동이 동-서향을 취할 때는 동쪽에는 취침공간이 일렬로 배열되고, 서쪽에는 거실 및 식사공간이 배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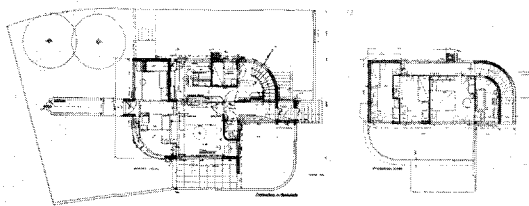
이러한 평면형은 단독주택의 경우 같이 2층으로 분화된 평면에서도 종종 보인다. 사례1) 단지에서 한스 샤로운이 계획한 2층 단독주택이 그 예이다. 1층에는 거실, 서재, 식사공간을 배치하고, 2층에는 침실을 배치하여 공, 사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였다. 또한 개인공간으로 출입하는 동선에서 자유로워진 거실 등 공동생활공간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 특히 거실을 개방한 것은 그 이전 시기까지 '보여주는 공간', '과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거실, 즉 보수적으로 장식되고, 형식적인 가구가 배치된 손님을 위한 거실 개념으로부터 탈피한 것이다. 거실은 하나의 완결된 실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개방되고, 모두로부터 쉽게 접근 가능한 실용적인 사용을 염두에 둔 공간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사례6)의 단독주택인 마르트 스타트의 평면은 1층에 거실이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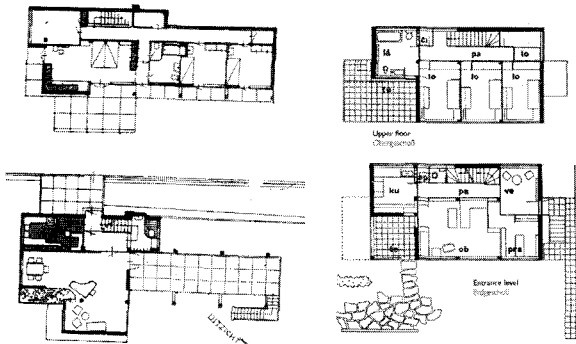
11)Friederike Schneider, Grundrißatlas, Birkhäuser, Basel, 1997, p.18



a) 오토 헤슬러(출처: 출처: Peter Faller, Der Wohngrundriss, Stuttgart, 2002, p.86)  
 b) 오토 헤슬러(출처: 출처: Peter Faller, Der Wohngrundriss, Stuttgart, 2002, p.87)



c) 한스 샤로운  
 (출처: Mart Stam et al, Funktionalismus 1927-1961, Sulgen, 1997, p.27)



d) 마르트 스타(출처: Mart Stam et al, Funktionalismus 1927-1961, Sulgen, 1997, p.27)  
 e) 라디슬라브 작(출처: Stephan Templ, baba: Die Werkbundsiedlung Prag, Basel, 1999, p.47)

<그림 2> 개방형 평면

치되고 취침공간은 2층에 배치되는 전형적인 2분화 평면형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때 건축가는 상, 하층 영역을 직각으로 축을 돌려 배치함으로써 두 영역이 상호 구애받지 않고 각각 필요한 면적만큼 계획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전통적 폐쇄형 평면에서 탈피한 '원심적 평면'이다.<sup>12)</sup> 철근콘크리트 라멘식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모듈 적용을 전제로 하여, 아동실, 차고, 계단 등 작은 공간이 이 모듈에 맞추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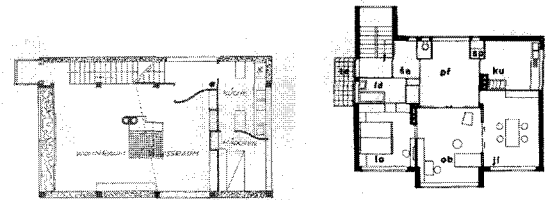
한편 같은 사례6)에서 라디슬라브 작이 계획한 평면 역시

12) 이 개념은 두스부르크가 1923년에 파리의 가을 살롱전에서 선보였던 것이었다.(Stam, Mart 의, Funktionalismus, Verlag Niggli, Sulgen, 1997, p.28)

공, 사적 공간이 상, 하층으로 분리된 평면으로, 철근콘크리트 기둥들의 간격이 평면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때 거실은 이동 가능한 칸막이벽으로 구획되어 자유로이 상호 개방하거나 분리하도록 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평면들은 당시의 전형적인 2층 단독주택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단독주택 역시 철근콘크리트의 기둥구조로 인해 규칙적이고 단순한 요철없는 매스와 외관을 보인다.

### 3.3. 개방형·자유형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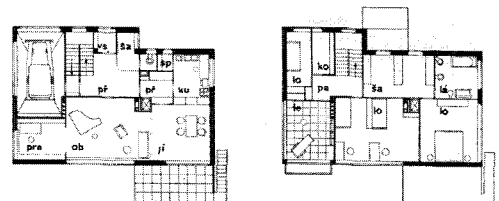
단위주호 내 공동생활공간을 개방적으로 구성한 경우이다. 유통형 평면과 다른 점은 개인공간, 즉 침실은 가변적으로 개방할 수 없는 유형이라는 점이다. 반면 거실, 식사실, 부엌, 서재 등은 필요에 따라 칸막이벽, 커튼, 가구 등으로 상호 차폐, 또는 개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이때 개방된, 또는 개방할 수 있는 각 공간은 가변적 요소로 서로 차폐되었을 경우 어느 한 공간에서 한 공간으로 갈 때 다른 공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통과형 공간구성을 취하게 된다. 즉, 동선은 서로 얽혀있으며, 공간들은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a) 르 코르뷔지에  
 (출처: Alfred Roth, Zwei Wohnhäuser, Stuttgart, 1991, 부록)  
 b) 울드리히 스타리  
 (출처: Stephan Templ, baba: Die Werkbundsiedlung Prag, Basel, 1999, p.51)



c) 에브젠 린하르트  
 (출처: Stephan Templ, baba: Die Werkbundsiedlung Prag, Basel, 1999, p.53)



d) 한나 쿠체로바(출처: Stephan Templ, baba: Die Werkbundsiedlung Prag, Basel, 1999, p.92)

<그림 3> 개방형·자유형 평면

이러한 성격은 거실, 식당, 부엌을, 또는 식당, 거실, 서재를 7자로 순차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부여된다. 르 코르뷔지에의 사례1)에서의 단독주택은 개방형 평면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러한 평면은 사례6)의 많은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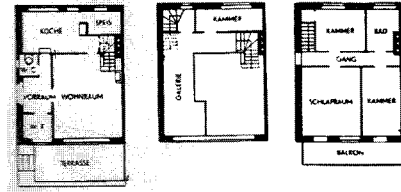
예를 들어 올드리히 스타리의 플랫폼 2세대 주택은 미단이 벽체로 상호 결합된 평면구성을 보인다. 개방된 공간은 매우 밝고 넓은 공간감을 제공한다. 에브겐 린하르트의 2세대 주택은 미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평면으로, 역시 자유롭게 개방된 구성을 하고 있다. 이 경우는 칸막이벽 없이 거실, 식사실, 서재가 개방되어 있다. 이때 기둥식이라는 구조적 제약은 전면 기둥을 중심으로 실을 대칭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나 쿠체로바의 평면은 붙박이장 등 건축과 일체화된 가구를 함께 계획함으로써 그것이 공간을 막아주거나 터주는 가변적 요소로 기능하도록 했다. 이는 동시에 공간에 활력을 주는 요소로도 활용되었다. 이 주택의 2층에는 침실들이 배치되었는데, 캐빈형 평면처럼 좁고 긴 침실이 일렬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비교적 넓고 개방적인 공간들이 복도 없이 배치된 형식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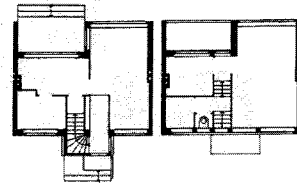
### 3.4. 라움플란(Raumplan)형<sup>13)</sup> 평면

아돌프 로스가 사례5)에서 제안한 단독주택은 1층에 거실, 2층에는 침실과 욕실을 배치한 53m<sup>2</sup>의 최소한의 평면이었다. 이 때 통로공간은 최소화되어 공간을 절약하였고, 1층과 2층 사이에는 갤러리를 구성하여 거실을 두개 층으로 개방하여 밝고 공간감 있는 거실을 확보하였다. 단순한 실 배치이지만, 거실을 높이고 개방함으로써 공간적 긴장감과 동선의 변화감을 유발한 것이다. 즉, 최소평면을 계획함에 있어서 평면뿐만 아니라 볼륨의 면적 배분에 주안점을 두어 층고를 기능적으로 계획한 것이다. 이로써 이 주택은 면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간감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로스의 라움플란 개념이 매우 구체적으로 실현된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라움플란의 개념은 로스의 평면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가들의 평면에서도 부분적으로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스플릿 레벨(split level), 또는 스킵 플로어(skip floor)를 이용한 층고의 조절이다. 예를 들어 사례6)의 라디슬라브



a) 아돌프 로스(출처: Friederike Schneider, Grundrißatlas, Basel, 1997, p.15)



b) 에른스트 플리슈케(출처: Helmut Schramm, Low Rise-High-Density, Wien, 2005, p.30)

<그림 4> 라움플란형 평면

작의 평면에도 거실 주변으로 단차를 둔 것을 볼 수 있다. 각 공간은 다른 층고로 계획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전형적으로 각 공간들의 규모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도 탈피하였다. 욕실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할당되었고 또한 테라스에 면하도록 하였다.(그림 3 라디슬라브 작의 평면 참조) 넓은 욕실은 통풍, 채광,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다.

이밖에도 에른스트 플리슈케는 욕실과 화장실을 계단참에 배치시키고, 거실의 높이를 반층 높였다. 리트펠트 역시 테스트의 신조형주의 개념을 이에 접목시켜 101m<sup>2</sup>의 면적에 다양한 층고를 갖는 평면을 제시했다. 여기서 침실에는 유리문과 천창을 설치하여 밝고 넓은 느낌을 주었고, 돌출계단을 배치하여 공간의 역동적인 경험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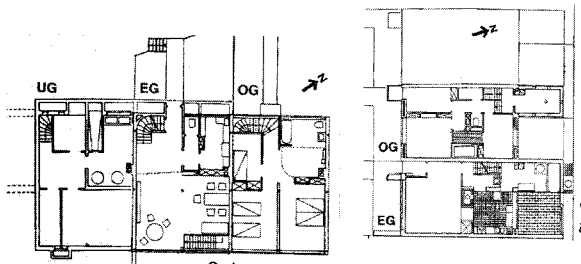
이러한 라움플란의 개념은 공간을 흥미롭게 계획한다는 차원을 넘어 밝고 넓으며 통풍이 잘 되는 공간, 즉 물리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심리적 욕구까지도 고려한 공간구성이라는 데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3.5. 기능적 복층형 평면

전시회 주택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등장했으며, 평면계획은 이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했다. 또한 공동주택은 가능한 많은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대량생산의 요구에 맞추어 합리적인 시공과 공장생산된 조립식 부재를 사용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단독주택 평면계획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평면의 유형들이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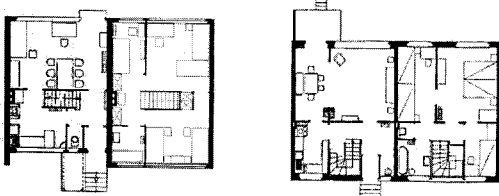
사례1)에서 마르트 스타만은 연립주택에서 2층 내지 3층의 복층형 주거 2종류를 제시하였다. 1층에는 가족 공동생활공간, 2

13)Raumplan은 언어로 번역하면 space plan으로, 그 사전적 의미는 공간 계획이라 할 수 있지만 로스에게 있어서 라움플란은 주택을 계획함에 있어서 공간계획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나는 평면, 입면, 단면이 아니라 공간을 설계한다. 사실상 나의 설계에는 지상층도, 이층도, 지하층도 없으며 단지 조합된 방들, 결방들, 그리고 테라스들만이 있을 뿐이다. 모든 방은 각각 특정한 층고를 요구하므로 천장은 각기 상이한 높이들로 배열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실들은 그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지각되어지지 않고 자연스러울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구성되어져야만 한다.”(이세영·신재영, 아돌프 로스 주택에서의 라움플란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1997,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17권 2호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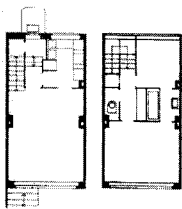
a) 마르트 스타프(출처: Peter Faller, Der Wohngrundriss, Stuttgart, 2002, p.140)

b) 아우드(출처: Peter Faller, Der Wohngrundriss, Stuttgart, 2002, p.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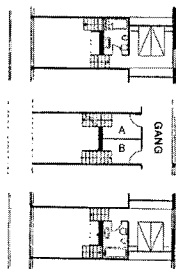


c) 그로피우스(출처: Helmut Schramm, Low Rise-High-Density, Wien, 2005, p.23)

d) 로호스탐퍼(출처: Helmut Schramm, Low Rise-High-Density, Wien, 2005, p.23)



e) 발터 로스(출처: Helmut Schramm, Low Rise-High-Density, Wien, 2005, p.30)



f) 한스 샤로운(출처: Peter Faller, Der Wohngrundriss, Stuttgart, 2002, p.181)

<그림 5> 기능적 복층형 평면

층에는 개인공간이 배치된 수직 분화형 평면이지만 가능한 많은 세대에게 균등한 조건을 배분해야 했으므로 단독주택들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넓은 전면을 확보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세장형에 가까운 전, 후면 비례를 갖게 되었다. 마르트 스타프는 대량생산을 위해 같은 폭으로 반복되는 건축적 요소들을 도입했고, 이를 미학적,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1층은 비교적 자유로운 구성을 갖는데, 후면에 부엌, 계단실, 현관을 배치하고 전면에는 거실 등의 거주공간을 한 공간으로 통합하여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2층의 개인공간은 하부층의 1/2의 폭으로 두 배이를 형성한다. 1층의 거실, 2층의 침실 등 모든 거주실은 동향을 취하여 채광에 유리하도록 했다.

사례1)의 아우드의 평면 역시 스타프의 평면과 유사하여 전면에 거주실, 후면에 주거생활에 기능적으로 필요한 실들을 배치했다. 이 평면에서는 후면에 넓은 서비스 야드가 제공되어 진입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도록 했으며, 이와 동시에 거실이 배치된 전면부에도 현관을 두어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피하였다. 특히 후면의 가사 관련 공간들에 많은 면적을 할애하여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능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보통 데드스페이스로 여겨졌던 기능적 이동공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계단실을 연장하여 예비준비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sup>14)</sup>

한편 사례2)에서 그로피우스는 비슷한 개념으로 73m<sup>2</sup> 규모의 복층형 주호를 제시했다. 전면폭은 5.6m로 최소화 했으며, 주호 내부에는 가로계단이 배치되어 전, 후면의 거주실을 기능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후면에 욕실, 부엌을 배치한 것은 이 당시 활발히 보급되기 시작했던 가사 관련 설비들, 즉 난방, 취사, 위생을 위한 공간들에 필요한 설비배관들을 집중시켜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또한 사례2)에서 로호스탐퍼 역시 75m<sup>2</sup> 규모의 복층형 평면을 제시했는데, 그로피우스의 평면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현관 입구에 계단실 배치함으로써 주호의 깊이를 줄이고 전면폭을 좀 더 확보했다는 점이다. 사례5)의 발터 로스의 경우도 비슷한 개념인데, 설비집약 공간을 평면의 중심에 배치하였다.

한편 사례3)의 한스 샤로운의 독신자숙소는 이러한 개념이 좀더 변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주택은 공동생활공간이 주동 내 별도로 있으며, 개인공간은 최소화 된 형식이다. 두 주호가 하나의 쌍을 이루는 개인공간은 복도에 면하여 스킵 플로어(skip floor)를 형성하며 맞물려 있다. 복도 쪽에는 두 주호의 개별적인 현관을 배치하여 서로 방해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주호 내에서는 거실과 취침공간이 계단을 매개로 하여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고, 각 공간은 최소한의 규모, 즉 생존을 위한 최소공간(Existenzminimum)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평면들은 미스 등이 제안한 플랫형 아파트들과 대비되는 계획 개념으로, 접지성을 살리고 단독주택과 비슷한 조건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공동주택으로서의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기능적으로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아이디어들이 집결되었다.

### 3.6. 복도중심의 영역분리형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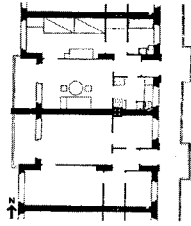
이 평면 유형은 유럽의 산업혁명 이전의 전형적인 '시민사회적 주거유형'의 맥을 잇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실, 식사실을 포함하여 각 공간은 개별 실로 독립되어 완결된 공간을 형성한다. 주거공간의 내부에는 복도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폐쇄적인 경향을 보인다.

사례4)의 LM형<sup>15)</sup> 주거는 단위주호 내 거주와 취침 영역을 상호 분리하여 복도를 구성하되, 거실이 통과동선으로부터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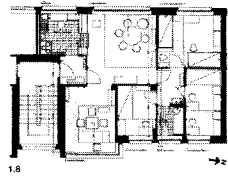
14)최재석, 네덜란드 근대건축, p.128

15)노이빌 주택전시회에서는 각 건축가가 개별적인 계획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7명의 건축가들이 공동의 이름으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각 평면에는 고유의 명칭이 부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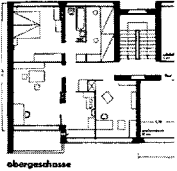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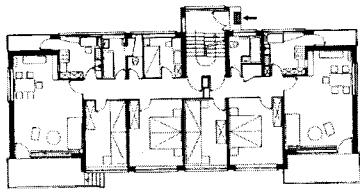
a) 그로피우스(출처: Peter Faller, Der Wohngrundriss, Stuttgart, 2002, p.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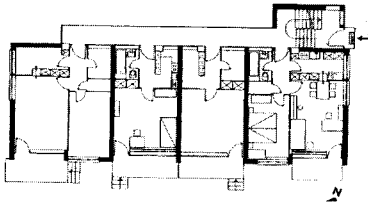
b) 그로피우스(출처: Peter Faller, Der Wohngrundriss, Stuttgart, 2002,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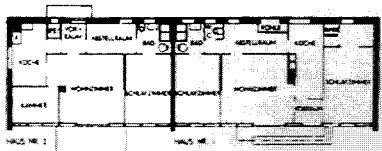
b) 그로피우스(출처: Peter Faller, Der Wohngrundriss, Stuttgart, 2002 p.220)



d) LME타입(출처: Peter Faller, Der Wohngrundriss, Stuttgart, 2002, p.19)



e) PQ타입(출처: Peter Faller, Der Wohngrundriss, Stuttgart, 2002, p.180)



f) (출처: Friederike Schneider, GrundrißAtlas, Basel, 1997, p.15)

<그림 6> 복도중심의 영역분리형 평면

해받지 않도록 평면의 깊은 위치에 배치하였다. 전형적인 계단 실형 주동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전면 폭과 베이는 다른 유형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한편 이처럼 거실을 깊숙이 배치하는 방식은 거실을 현관에 인접하여 통과동선을 흡수하는 방식, 즉 비교적 개방적인 평면과 대조적이며, 종종 각각의 장 단점에 대해 논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한편 사례4)에서 복도형 주동형식을 취한 PQ형 평면은 복도에 인접해서는 통과동선의 방해에 민감하지 않은 공간들을 배치했는데, 한 주동 내에서도 복도 중간에는 전면폭이 좁은 소형의 주호를, 양 끝단에는 큰 규모의 주호를 배치하여 복도로 인해 단위주호의 실들이 침해받는 요인을 최소화하였다. 내부에는 역시 거실 및 침실이 복도를 중심에 두고 각기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면은 사례2)에서 그로피우스가 제안한 복도형 주동 평면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다.

사례5)의 휴고 헤링의 안은 주요 실들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주호의 깊이를 얇게 만들었고, 후면에는 복도를 배치했다. 남측에는 현관, 거실, 침실을, 북측에는 부엌, 화장실, 창고가 배치되었다. 거실과 침실 등 각 실 사이에는 미닫이 벽을 구성하여 공간간의 융통성을 확보하였다. 이 평면의 전면 실들은 목재 및 유리로 된 투명한 파사드에, 나머지 공간이 배치된 3면은 두터운 조적조에 면하도록 하여 태양열을 주호 내 효율적으로 끌어들도록 했다<sup>16)</sup>. 이 평면은 모든 실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마치 캐빈형 평면을 거실, 식사실까지 확대 적용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4. 주택전시회의 단위주호 평면에 반영된 시대적 쟁점

1920-30년대의 여러 주택전시회에서는 주로 ①현대인의 생활욕구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 의한 평면계획이 수반된 주택, ②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안락하고 실제적인 생활양식을 수용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지닌 주택, ③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단순화되고 기능화된 실내공간, ④새로운 시공법과 재료의 선택: 표준화된 부재와 건설구조의 사용을 통한 대량생산의 근원적 모델설정<sup>17)</sup> 이라는 명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계획의 쟁점들은 단위주호들에 적극 반영되었음을 평면 조사와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여러 전시회마다 제시된 매우 다양한 평면들에서는 실제로 실현된 시대적 요구와 쟁점들이 각각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즉 전시회의 성격에 따라, 평면의 유형에 따라 중요하게 적용된 개념들은 서로 달랐던 것이다. 각 평면에서 반영된 시대적 쟁점과 요구들, 그리고 평면계획의 개념들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 5. 결론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주택전시회를 통해 건축가들은 주거가 한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고심한 결과들을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였다. 주택전시회의 시범주택들에서는 다양한 주거의 유형을 비롯하여 평면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20-30년대의 기능주의 주거건축들은 대량생산과 공업화의 산물로 최소한의 인간적 요구에만 맞추어진 기능적 평면들을 제공했다고 알려져 왔으며, 이것의 효시가 된 것은 독일의 바이센호프 주거단지라고 여겨져 왔다. 또한 이러한 근대의 주거에 대한 새로운 발상은 국제주의 건축의 출발점이 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로 확산되었고, 결과적으로 단조롭고 획일화된 주거문화를 양산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16)Friederike Schneider, GrundrißAtlas, Birkhäuser, Basel, 1997, p.15

17)박상현 외(1998), 근대 시범주거의 시대적 대응성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4호, p.59

<표 2> 공작연맹단지 주택전시회 평면에 반영된 시대적 요구 및 쟁점

| 평면에 반영된 시대적 요구 및 쟁점 | 평면 계획의 특징  | 평면의 유형 및 사례           |                      |                      |                                |                 | 복도중심의 영역분리형               |
|---------------------|--|-----------------------|----------------------|----------------------|--------------------------------|-----------------|---------------------------|
|                     |  | 유통형                   | 캐빈형                  | 개방형/자유형              | 라운드플랜형                         | 기능적 복층형         |                           |
|                     |  | 바이센호프 주거단지·브레슬라우 주거단지 | 바이센호프 주거단지·바바 공작연맹단지 | 브레슬라우 주거단지·바바 공작연맹단지 | 노이빌 공작연맹단지·비인 공작연맹단지·바바 공작연맹단지 | 바이센호프 주거단지·담머스톡 | 담머스톡·노이빌 공작연맹단지·비인 공작연맹단지 |
|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능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광, 통풍, 환기에 대한 고려</li> <li>가사작업공간의 충분한 면적확보</li> <li>설비 공간의 집중배치</li> <li>공간의 개방성 확보</li> </ul>         |                       | ○                    | ○                    | ○                              | ○               | ○                         |
| 새로운 주택의 유형에 대한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형적 수평, 수직공간 배분에서 탈피</li> <li>공간의 입체적 구성과 인접 주호와의 관계 고려</li> <li>주동내 공용공간에 대한 고려</li> </ul>             | ○                     |                      |                      |                                | ○               | ○                         |
| 거주자 유형의 규범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유형의 변화에 대한 고려</li> <li>거주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면적 산정</li> <li>정확한 가구배치로 실 사용을 규범화</li> </ul>                  | ○                     | ○                    |                      |                                | ○               |                           |
| 새로운 기술력의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구조에 따른 실 배치</li> <li>기둥 스패에 따른 배어 적용</li> <li>즉물적이고 단순한 형태와 입면에 부응</li> <li>단순한 박스형의 단위주호</li> </ul> | ○                     | ○                    |                      |                                | ○               |                           |
| 주거건축의 합리화와 표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요소 적용</li> <li>규격화된 부재 사용을 고려한 실면적 산정</li> <li>단위주호의 단순한 외곽선</li> </ul>                      | ○                     |                      |                      |                                | ○               |                           |
| 주거공간의 미학적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레벨의 공간구성</li> <li>자유로운 면적 배분과 불규칙한 공간의 배열</li> </ul>  |                       |                      | ○                    | ○                              |                 |                           |

그러나 본 연구에서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수의 주택전시회를 조사해 본 결과, 단위주호는 상당히 다양하게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평면계획의 전형(prototype)이 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또한 많은 제약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들에는 건축가의 주거에 대한 철학과 작가정신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다. 즉, 주택전시회는 그 목적에 맞게 건축가의 역량이 발휘되는 장이 되었으며, 그 영향력이 후대에까지 크게 미치게 된 것이다.

유럽의 주택전시회에서 통용되었던 전제는 기술적 해결과 함께 한 개념과 아이디어의 집약이었다. 주택전시회는 현실적 가능성 하에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는 집결체였으며 대중의 요구에 부합되는 주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따라서 20-30년대, 주택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계획된 주택들은 지금까지도 근대주택의 모범적 해법들을 제시해 주는 우수한 사례들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들 주택전시회의 개최에는 공공기관의 역할도 매우 컸고, 일련의 정치적 행사이기도 했다. 그 결과 제시된 새로운 주택의 개념들과 그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은 공공을 위한 주거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는 주택전시회의 또 다른 큰 성과였으며, 여기서 채택된 아이디어들은 보편적으로 다양하게 확산되었다.

한편 주택의 대량생산의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담머스톡 주거단지와 같은 극단적으로 획일적인 사례들만 답습해 왔고 그것을 당연시 여겨왔으나,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다른

여러 사례들은 그보다 더욱 우수한 사례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주거건축을 반추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본 다양한 유럽의 혁신적 사례들이 주택의 계획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조명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이호정, 주거건축으로 본 근, 현대건축, 태림문화사, 서울, 2006
2. 최재석, 네덜란드 근대건축, 서우, 서울, 2004
3. 박상현 외, 근대 시범주거의 시대적 대응성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4호, 1998
4. 이세영·신재영, 아돌프 로스 주택에서의 라움플란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17권 2호, 1997
5. 정성훈, 건축박람회를 통한 주거건축 유형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10호, 2000
6. Alfred Roth, Zwei Wohnhäuser, Akadem.Verlag, Stuttgart, 1991
7. Friederike Schneider, Grundrißatlas, Birkhäuser, Basel, 1997
8. Gert Kähler, Geschichte des Wohnens, DVA, Stuttgart, 1996
9. Hafner, Thomas et al, Wohnsiedlungen, Birkhäuser Verlag, Basel, 1997
10. Helmut Schramm, Low Rise-High-Density, Springer Verlag, Wien, 2005
11. Hilberseimer, Ludwig, 윤재희·지연순 역, 근대건축의 역사, 세진사, 서울, 2000
12. Peterek, Michael, Wohnung, Siedlung, Stadt, Gebr. Mann Verlag, Berlin, 2000
13. Peter Faller, Der Wohngrundriss, 2002, DVA, Stuttgart, 2002
14. Richard Weston, Modernism, Phaidon, New York, 1996
15. Stam, Mart 외, Funktionalismus, Verlag Niggli, Sulgen, 1997
16. Templ, Stephan, Die Werkbundsiedlung Prag, Birkhaeuser, Basel, 1999
17. www.isl.uni-karlsruhe.de
18. www.wroclaw.hydra.com
19. www.common.wikimedia.org

<접수 : 2007. 10. 31>